

한 학기 한 권 읽기

『화원귀 문구』

독서지도안



작성: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 이 독서지도안은 고즈넌이엔티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zknock>

책 소개

“귀신이라면서, 문구점에서 알바를 하겠다고요?”



공부하랴 문구점 운영하랴 바쁜 고등학생 표단비
생전에 화원이었다는 귀신 허현과 알바 계약을 맺는다.

한국 고등학생과 조선 화원의 시대를 초월한 힐링 프로젝트!

세진고등학교 신입생 표단비는 새 학기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아버지가 덜컥 계약한 무인 문구점을 도맡아 운영하게 됐으니까. 아무리 ‘무인’이래도 학교에 학원에 동아리 활동까지 해야 하는 단비에게 문구점을 관리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부와 일에 치일 때마다 단비는 엄마를 떠올린다. 엄마가 일 년 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실생활 노하우가 가득한 ‘단비 다이어리’를 남겨둔 덕에 단비는 가까스로 버틴다.

그런 단비 앞에 생전에 도화서 화원이었다는 조선시대 귀신 허현이 나타난다. 별안간 문구점에서 일하겠다고는 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못다 그린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머물겠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마침 알바가 필요했던 단비는 현과 알바 계약을 맺는다.

독서 계획



단계	차시	활동 내용	쪽수
독서 전	1	생각 열기 - 『화원귀 문구』의 표지(제목과 표지 이미지)로 내용 유추하기 - 출판사 소개글과 작가의 말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4
	2	소설 속 등장인물 정리하기	6
독서 중	3~4	이별 후에 남겨지는 것	8
	5~6	친구와 나	12
	7~8	나의 삶, 꿈?	15
	9~10	책 속에 숨겨진 진짜 역사	18
독서 후	11	‘00 다이어리’ 만들기 - 친구들과 서로를 위한 조언을 담은 다이어리 꾸며보기	21
	12	연계 활동: 독서 신문 만들기	22

1차시 — 생각 열기



1. 제목과 책 표지를 자세히 보고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① 표지 이미지는 어떤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② 제목의 뜻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세요.

③ 『화원귀 문구』의 표지와 제목의 뜻을 유추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세요.

④ 출판사의 소개글과 ‘작가의 말’을 읽고 『회원귀 문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잃었다는 조선시대 귀신, 무인 문구점에서 ‘알바’를 시작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는 아이들, 시대를 넘어 서로를 위로하는 이야기

세진고등학교 신입생 표단비는 새 학기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아빠가 털려 계약한 무인 문구점을 도맡아 운영하게 됐으니까. 제아무리 ‘무인’이래도 학교에 학원에 동아리 활동까지 해야 하는 단비에게 문구점을 관리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단비 앞에 생전에 도화서 화원이었다는 조선시대 귀신 허현이 나타난다. 별안간 문구점에서 일하겠다는 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 못다 그린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만 머물렀다는데……. 마침 알바가 필요했던 단비는 현과 알바 계약을 맺는다.

(출판사 소개글)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거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를 때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닌가 하고 심장이 쿵 내려앉아요. 그러다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요. 이별이란 이렇게 생각만으로도 아프고 피하고픈 일입니다. (중략) 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 것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이라면 어떻게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잘 이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자 단비와 현, 석기의 이야기가 조금씩 떠올랐어요. 그리고 소셜 속 인물들이 이별의 아픔을 치유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회원귀 문구』는 어쩌면 저에게 스스로 놓는 예방주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략)

(작가의 말)




(1) 내가 추측한 내용과 출판사의 소개글을 비교해 보세요.

내가 추측한 이야기와 비슷한 점	내가 추측한 이야기와 비슷한 점

(2) 제목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출판사의 소개글을 바탕으로 적어보세요.

2차시 — 소설 속 등장인물 정리하기

1. 『화원귀 문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뇌 구조를 그려보고, 인물의 특징, 성격, 가치관을 정리해 보세요.

	뇌 구조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
단비		<p>[tip] 스스로 인물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빈칸으로 제공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p>
석기		
환희		

2. AI 이미지 생성기에 키워드를 입력해 내가 선정한 등장인물들의 예상도를 만들어보세요.

The screenshot shows the MANGAboard AI image generation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MANGAboard', '파일', '다운로드', '공유', and '인쇄'. Below this is a search bar with the text '템플릿과 디자인요소 바로 찾기...' and a '상세' button.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ctions: 'AI 갤러리', 'AI 이미지 만들기' (highlighted), and 'AI 모델사진'. Under 'AI 이미지 만들기', there is a '남은 횟수' indicator showing '19/20 (1일)'. A '뒤로' button is present. The search history shows '동화 일러스트'. The '이미지 묘사' section contains the prompt: '남자 고등학생, 침착함, 착함, 생각이 깊음, 과학 동아리 참여, 의사가 되고 싶어함'. Below the prompt, there are four generated images of a male high school student in various styles and settings. At the bottom, there is a toggle switch for '원본 유지하며 내용 수정하기 ?'.

[tip] 자신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원하는 그림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며, 받은 내용에서 키워드를 수정하여 이미지 재 생성도 가능함. 이외의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이 많으니 적절히 바꿔서 사용 가능.

[tip] 망고보드에서 AI 탭을 활용하여 자신이 그려내고 싶은 이미지 스타일로 이미지 생성 가능(1일에 20회 무료).

3~4차시 — 이별 후에 남겨지는 것

『화원귀 문구』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간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주제, ‘이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1. ‘이별’에 대해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2. ‘이별’과 관련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하며 책 내용을 떠올려보세요.

① 단비와 엄마

단비의 엄마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결국 하늘나라로 가시며 이별하게 되었다. 엄마는 아빠와 둘이 살아갈 단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은 ‘단비 다이어리’를 남겨주셨고, 단비는 다이어리의 말을 늘 새기며 살아간다. 엄마는 ‘단비 자신을 1순위로 두고 살 것’을 다이어리에 가장 첫 번째로 적어주었다.

② 단비와 석기

우연히 만난 단비와 석기는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준다. 석기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은 뒤, 자신이 속해야 할 곳으로 떠나가며 둘은 헤어지게 된다. 이별이 두려워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단비가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③ 석기와 현

의형제를 맺고 서로를 아끼던 두 사람. 석기가 결국 천주교 신자로 들통나 형벌을 받고, 현과 아무런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이별하게 된다. 현은 아직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석기에게 시간을 달라며 간청하고, 석기는 보류자가 되어 100일의 시간을 얻게 된다.

2. 인물의 감정선을 따라 함께 걷기

인물의 감정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구간 발췌하여 적어보고, 인물의 감정이 담긴 문장을 읽고 난 뒤 나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적어보세요.

페이지	‘이별’에 대한 인물의 감정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장	문장을 보고 난 뒤, 나의 감정
134쪽 (예시)	<p>“인간이 가장 덜 외로울 때는 고독할 때래.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p> <p>현의 말을 가만히 듣던 하은이는 블록 상자들을 가방 안에 넣었다. 하은이의 눈에는 작은 눈물방울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p> <p>“오랜만에 선물 받으니 기분 좋다. 현아, 고마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은이가 지금까지 느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현(석기)이 알아보고 어루만져 주는 모습에 나도 위로받은 기분이다. - 외로움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 같다. - 하은이는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친구가 있어서 기분이 좋을 것 같다.

3. 주제 확장하기: 다음 기사를 읽고 생각해 보세요.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에서 장지성 씨가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 나연이를 VR을 통해 재회했다.

"나연아, 잘 있지? 엄마 나연이 보고 싶었어. 나연이 안아보고 싶어."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과 가상현실에서 만난 엄마 장지성 씨는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다. 6일 MBC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에서는 장 씨가 혈액암으로 갑작스레 떠나보내야 했던 7살 난 딸을 VR(Virtual Reality) 속에서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그렸다. 감기인 줄 알고 찾았던 병원에서 셋째 딸 나연이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고, 한 달 만에 눈을 감았다. 이별 뒤에도 장 씨는 나연이의 존재를 기억하려 애썼다.

블로그에 아이를 그리워하는 글을 꾸준히 쓰고, 몸에는 나연이의 이름과 생일을 새겼다. 아이 뱃가루를 넣은 목걸이도 늘 착용하고 다녔다. '어떻게라도 한 번 보고 싶다'라는 장 씨의 바람을 위해 제작진은 VR 기술을 동원, 나연이의 얼굴과 몸, 표정, 목소리를 구현했다. 나연이의 등장엔 장 씨는 눈물을 흘리며 VR 속 나연이를 안으려고 애썼다.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여준 뒤 사랑한다고, 한 번도 잊은 적 없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람이었던 엄마는 미역국도 주고 생일 케이크에 초를 켜기도 했다.

만남 이후 지성 씨는 "웃으면서 나를 불러주는 나연이를 만나 아주 잠시였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다. 늘 꾸고 싶었던 꿈을 꾀 것 같이"라며 "나연이를 그리워하고 아파하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면서 내 옆의 세 아이들과 많이 웃으며 살고 싶다. 그래야 나연이를 만날 때 떳떳할 수 있으니"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남겼다.

디지털 복원 과정...다양한 기술 접목

제작진에 따르면 나연이의 생전 모습을 담기 위해 모션 캡처, Si음성인식, 딥 러닝(인공신경망 기반 기계학습) 등 다양한 최신 기술이 사용됐다. 남겨진 사진과 동영상 속의 나연이의 몸짓, 목소리, 말투 등이 재료로 활용됐다. 이후 비슷한 나이의 대역 모델을 통해 VR 속 모델의 기본 뼈대를 만들었다. 나연이의 목소리는 몇 개 없는 동영상 속 나연이의 실제 목소리를 토대로 했다. 부족한 데이터는 5명의 또래 아이 목소리를 더빙하여 '딥러닝'을 통해 채웠다. 제작 과정은 자료 수집부터 완성까지 총 7개월이 넘게 걸렸다.

관련 반응은 뜨거웠다. 유튜브 영상은 일 기준 조회 수 1,300만 회를 넘길 정도로 관심을 모았고, 전 세계 시청자의 댓글 19,000여 개가 올라왔다. '떠난 아이를 나도 만나고 싶다. 제발 VR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기술의 가능성에 놀랐다', '대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가상 현실 속 만남에 우려를 표하는 글도 볼 수 있었다. '천국인지 지옥인지 모르겠다'라는 내용부터 '만남 이후 더 큰 슬픔과 허망함에 빠질까 봐 걱정이 된다'며 휴유증을 걱정하는 반응 등이었다.

VR로 나연이를 구현한 비브스튜디오 이현석 감독은 제작팀 역시 이 부분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완성 이후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 참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 블로그 내용과 인터뷰 등을 봤을 때 가족들이 나연이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 매우 건강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제작팀은 어머니 장지성 씨가 충분히 '공감'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과 시나리오 작업에만 약 4개월 가까운 시간을 쏟았다.

이 감독은 "다큐멘터리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왜 나비가 날아와서 어머니가 맘도는지, 나연이가 왜 핑크색 가방과 슬리퍼를 신고 있는지, 왜 나연이가 엄마에게 감자꽃을 건네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 모든 장치와 연결 고리들은 어머니와 나연이의 추억과 기억에서 나온 스토리 텔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디지털 휴먼 기술, 가상 현실 기술,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3D 스캐닝 기술 등의 힘을 빌려 가족분들에게 행복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나연이와의 만남, 애도 상담과정과 비슷'

심리학 전문가는 이런 VR을 통한 만남이 애도 상담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KU마음건강연구소 고선규 교수는 "준비되지 않았던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급성 고통이 지난 후 제대로 된 이별(Farewell)을 하는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곤 한다"며 "나연이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면서 잘 가라고 작별하는 경험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도 "빈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하고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도록 할 때가 있다"며 "소중한 사람에게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보는 것 자체가 감정의 정화감, 속풀이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가상현실 기술은 이미 '인간 심리 치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교수는 "불안장애나 공포증 치료에서 가상 현실이나 증강 현실 등이 이용되고 있다"며 "VR, AR 기술로 상상을 거의 현실화하면서 불안자극을 제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극복하는 시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AR은 증강 현실로 현실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치매나 우울증 등에도 VR 등은 활용되고 있다. 게임 훈련 방식의 VR도 있지만 이번 '너를 만났다'처럼 과거 추억을 스토리텔링의 주제로 삼는 경우도 있다. 영국 '더 웨이백'은 시험판으로 치매환자들을 위해 1953년 6월 있었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을 재현했다. VR을 통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해 머릿속 깊숙한 곳 기억을 떠올리는 식이다.

심리 치료 영역은 아니지만 떠난 고인과 남은 가족을 연결해주는 가상 현실 기술도 있다. 지난 2016년 일본 기업 양심석재는 '스팟메시지'라는 AR을 통해 묘지 비석에 고인의 사진이 나타나게 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후략)

출처: 너를 만났다: '가상현실' 속 그리운 사람과의 재회, 실제 치유가 될까?, BBC 코리아, 2020년 2월 14일
<https://www.bbc.com/korean/news-51498614>

Q. 죽음과 애도, 이별의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Q. '너를 만났다' 사례와 같이 갑작스레 이별한 이들과 재회하는 VR 프로그램은 대중화가 가능할까요?

5~6차시 — 친구와 나



1. 『화원귀 문구』는 단비의 시각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 대해 단비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인물	사건	수행평가 사건. 우주가 끝까지 수행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단비는 참여 명단에서 우주를 제외하지만, 선생님은 우주에게도 단비와 같은 점수를 주심.	중학교 3학년 때의 미술 대회 사건	[tip] 해당 활동은 사건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진행하거나, 지도 교사가 제시하여 진행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비		억울하고 분함.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고 수행평가를 완성하였지만, 같은 점수를 주시려 하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움. 힘들게 버티고 있던 상황에서 담임선생님과 대화 속에서 울음이 터짐.	엄마가 아픈 상황에서 미술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미술 대회에 참가한 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됨. 엄마가 이제 없다는 사실에 크게 절망하며 미술 대회에서 입상한 것이 기쁘지 않았음.	
석기		단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주가 단비에게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면 직접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길 조언함.		
하은		우주의 행동에 대해 단비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우주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림. 단비를 위로하고자 함.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비가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을 것 같음.		
환희		소식을 전해 들었다면, 단비가 안타까웠을 것 같음. 우주가 왜 그러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졌을 것 같음.		
우주		단비가 골탕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거짓말을 함. 일부러 조를 바꾸고, 자료를 대충해서 넘겨주는 등 단비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듯 보임.	자신의 큰 목표였던 미술 대회에서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상을 받은 단비가 상이 쓰레기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죽을 만큼 노력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짐.	

2. 이야기 확장하기: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작성해 보세요.

42쪽	<p>급식 시간에 밥을 먹을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는 하은이에 게 종종 빈정대며 놀리는 아이들 무리가 생겨났다. 유명한 일진, 이기준 무리였다. 단비가 그런 장면을 세 번째로 목격한 날이었다. 그날따라 놀림이 길어져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기던 하은이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적은 왜 그 모양이냐.” “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냐? 그럼 네 얼굴부터 어떻게 해달라고 해봐.” “요! 에이맨!” “할렐루야!”</p>	
137~138쪽	<p>생명과학실에 갔을 때는 실험이 끝났는지 우주와 조장 선배 둘만 있었다. 단비는 선배에게 눈인사를 하고 바로 장우주에게 따져 물었다. “장우주! 나는 날짜 바뀌었다고 전달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월요일에 말했는데 기억 안 나?” “월요일 언제?” “선배한테 듣고 쉬는 시간에 너한테 바로 말했어.” 단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혀 기억에 없어. 그리고 나는 목요일에 학원 있어서 만약 들었으면 목요일은 안 된다고 했을 거야. 나한테 대답 듣긴 한 거야? 내가 아무 말 안 했을 텐데 그럼 다시 물어서 제대로 확인했어야 하는 거 아냐?”</p>	
141쪽	<p>단비는 돌을 바라보는 반 아이들의 시선을 느꼈다. 아이들의 눈에 우주는 약자로, 단비는 약자를 억박지르는 애로 보일 터였다. 하은이가 단비 곁에 다가와 팔을 잡으며 그 만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자꾸만 이런 식이었다. 분명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잘못하고 있는 건 우주인데 항상 단비가 우주를 몰아가는 것처럼 보였다.</p>	

3. 주제 확장하기: 각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세요.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단비가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우주는 그런 단비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내밀었다. “정말 밉다. 표단비. 이렇게 또 날 이겨버리네.” 단비가 티슈를 받아 들었다. (232쪽)

Q. 우주와 대화한 뒤, 단비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Q. 우주는 단비와 대화한 뒤, 왜 자신을 또 이겼다고 말했을까요?

Q. 우리에게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Q.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Q. '우정'을 자신의 단어와 문장으로 정의해 보세요.

[표준국어대사전] 친구 사이의 정.

[위키피디아] 친구 사이에 나누는 정신적 유대감을 말할 때 쓰이는 용어다. 동급생, 이웃, 직장 동료 등 '지인'이나 '동맹'보다 더 강한 형태의 대인관계이다.

7~8차시 — 나의 삶, 꿈?

[tip] 꿈이 직업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가치관, 태도, 이루고 싶은 것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함께 지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단비와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책에 있는 경우 그대로 작성해도 좋고 없는 경우, 나름대로 상상해서 작성해 보세요.

이야기의 어느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페이지 기재).

	단비와 친구들의 꿈	이유
단비	- 의대 입학.	- 하늘에 있는 엄마에게 의대 합격증을 보여주고 싶음. (41쪽) 성적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41쪽)
환희	- 아빠와 같은 의대에 가고 싶어 함.	- 엄마가 늘 환희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88쪽) - 환희에게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기에 엄마를 돌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함. (88쪽)
석기	- 모두가 동등한 세상에서 사는 것. - “그림 속이 아닌 꿈꾸던 진짜 세상에서 아주 잠시라도 살아보는 것” (239쪽)	- 노비였던 석기는 천주교를 접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했다. (239쪽)
하은	- (상상) 더 이상의 이별 없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사는 삶.	- (상상) 하은이는 어렸을 적부터 전도사인 아버지를 따라 이사과 전학을 반복했다. 그래서 단비와 친해진 이후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미루어 보아 하은이의 꿈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134쪽)
현	- 석기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낙관이 찍힌 진짜 그림을 그려주는 것. (202쪽)	- 아버지가 석기의 그림을 자신의 그림인 양 내보이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석기가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히 살길 바램.
우주	- 미대에 진학하는 것.	- (상상)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고 싶었을 것 같음.

2. 누구나 유난히 힘든 날이 있죠. 그럴 때 이 노래 어떤가요?

『회원귀 문구』의 인물들은 각자 다른 사연과 고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은 인물을 한 명 선정하고, 인물에게 위로, 힘을 전해줄 수 있는 노래를 찾아 적어보세요. (내가 직접 시를 창작해도 좋습니다.)

① 내가 선정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단비

② (인물 이름)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행평가와 동아리 활동에서 우주와 계속 부딪히고, 결국 수행평가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난 뒤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는 단비의 모습이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③ (인물 이름)에게 전하고 싶은 노래와 선정한 이유

노래 제목: 너의 애길 들어줄게

가수: 윤미래

가장 추천하고 싶은 가사:

울고있는 슬픈 네게, 힘들었던 네게
가슴으로 불러주는 널위한 노래
혼자란 생각이 들때, 갑자기 눈물이 날때
아무도 너의 곁에 없다고 느낄때
기억해 혼자가 아닌걸
세상이 늘 아프게해도
이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는마
말없이 널 안아줄게, 너의 애길 들어줄게
돌아봐 내가 있을게
니가 흘린눈물 모두 닦아줄게

3. 주제 확장하기

① 꿈이란 무엇인가요?

② 단비의 엄마가 단비에게 당부한 첫 번째 약속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단비는 석기와의 만남으로 단비 다이어리 1번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누구보다 단비 자신을 1순위로 생각하기.'

(253쪽)

③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9~10차시 — 책 속에 숨겨진 진짜 역사

1. 다음은 단비가 '허현'에 대해서 검색한 자료 화면입니다. 해당 화면에서 뜻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를 찾고, 사전을 활용해 정리해 보세요.

지식백과

허현
🔍

시대: 조선 후기(19세기)
분야: 일반회화, 인물화, 기록화
직업: 도화서 화원

조선 후기에 활동한 화원이다. 호는 말로 돌아간다는 뜻의 귀마. 말을 사랑하고 사계절의 풍치를 완상하는 생활을 즐겼다. 또한, 집안 소유 사화서에서 그린 작품들로 장안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촉망받는 화원이었으나 21세 이후로 행적이 묘연하다. 사망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무슨 이유인지 가문에서 기록을 대부분 지워 자세한 행적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의 실종은 당시 도화서에서 큰 사건이었고 스스로 흉기로 손을 내리쳤다가거나 눈을 찔렀다는 설도 전해지나 사실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남긴 작품이 대부분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 요절한 천재 화원의 유작이라는 점 때문에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아직 진위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일부 작품은 마치 다른 사람이 그린 것처럼 화풍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산수화, 인물화, 화조도 등은 아직 연구가 계속되는 중이며 전시되지 못하고 있다. 인화 미술관에서 화원 시절에 그린 기록화가 여러 점 전시되어 있다.

[미술 지식백과] 허현(조선의 화가들, 2012.12.14.)

뜻이 궁금한 단어	단어의 의미와 활용
기록화	의미: 특정한 사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달한 그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활용: 현재 전하는 본격적인 기록화는 모두 조선시대의 작품이다.
완상하다	의미: 즐겨 구경하다. (표준국어대사전) 활용: 고대의 미술품을 완상하다.
천정부지	의미: 천장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물가 따위가 한없이 오르기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활용: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2. 허현과 소석기가 살던 시대는 조선 후기로,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가 이야기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의 모습은 어땠는지 조사해 보세요.

Q. 더 높은 곳을 바라보았던 중인 허일, 신분과는 상관없이 의형제를 맺었던 현과 석기. 이들이 살아가던 조선 후기의 신분제는 실제로 어땠을까요?

출처:

Q. 조선 후기에 '천주교'는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이야기 속에서 석기와 현이 감옥에 투옥되고 형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출처:

3. 연계 독서 하기

신분제가 드러나거나, 신분제를 담고 있는 문학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품명	내용 요약
홍길동전	<p>홍길동은 흥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다. 그는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흥 판서의 사랑을 받지만, 천비 소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천대를 받고 울분의 나날을 보낸다. 길동은 집안에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가 있음을 알고 출가한다. 위기를 피해 집을 나와 떠돌던 중, 길동은 도적의 무리를 만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활빈당을 조직한다. 길동은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양민을 돕지만, 조정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애쓴다. 조정에서 길동을 회유하고자 병조판서로 임명하자, 길동은 조선을 떠나 남경으로 가던 중 울도국을 발견하고 그곳의 왕이 된다. 길동은 울도국을 다스리다가 신선이 되어 사라진다.</p> <p>선정한 이유</p> <p>홍길동은 석기처럼 신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낸 점이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석기도 홍길동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p>
작품명	내용 요약
	<p>선정한 이유</p>

11차시 — ‘00 다이어리’ 만들기



단비의 엄마는 아빠와 남겨지게 될 단비에게 ‘단비 다이어리’를 남겨주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인간관계, 요리 레시피, 단비, 아빠, 위기 대처, 뷰티, 건강, 자산 관리, 입시, 연애, 결혼 등 각 챕터별로 단비의 인생에 필요한 여러 조언이 적혀 있습니다. 친구들과 서로를 위한 조언을 담은 ‘00 다이어리’의 첫 장을 꾸며보세요.

12차시 — 연계 활동: 독서 신문 만들기

『화원귀 문구』를 읽고 난 뒤,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11차시 동안 책을 읽으며 수행한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내용을 담은 〈화원귀 신문〉을 만들어보세요.

[tip] 책 내용과 관련된 것(작품 요약, 등장인물 관계도, 명대사 등) 혹은 이야기의 소재와 관련된 것(신분제, 기록화, 천주교 박해를 담은 역사적 사건 등)을 적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